

업 회 소 식

제52차 정기총회 개최

우리 협회 제52차 정기총회가 3월 30일(금) 14:00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원 637관(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이두영 회장의 개회사와 윤희창 국립중앙도서관장의 환영사에 이어 제33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단체 7관과 개인 11명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고 개인 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수상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87~89 쪽 참조] 시상식 후 본격적인 의안심의가 있었다.

황영환 감사(부산대학교 도서관)의 2000년도 정기회계 감사보고를 들은 후 이를 승인하였다. 이어 2000년도 사업실적과 회계보고가 있었는데 이 또한 그대로 승인되었다. 협회의 2000년도 일반회계는 수입 538,231,077원, 지출 501,225,387원으로 잔액은 37,005,690원이었다. 한편 2000년에도 외부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활발했다.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이 발표된 직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금(10,000,000원)을 받아 전국 도서관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국내작가 미술품(복제품)을 공공도서관에 지원하였다. 또한 1999년에 이어 1억원의 예산으로 농어촌지역 도서관 순회독서지도 및 읽고 싶은 책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리고 1999년 한국마사회로부터 4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해 오고 있는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신작문학작품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총 1억7천여만원의 자금으로 농어촌 공공도서

관 191관에 도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0년 사업보고 내용은 64~70 쪽 참조]

이어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2001년도 사업계획 가운데는 관종별 도서관기준 작성,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및 '모델링 개발' 보급사업, 남북도서관 협력사업 강화,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대사회적 발언 강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도서관문화학교" 공동운영,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의 개최를 통한 교육연수사업 강화, 전국민 책읽기 운동의 지속 추진,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저널 발간사업, 지구협의회 활성화 추진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한편 특별사업으로는 회비적립사업,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신작문학작품 지원사업, IFLA 2006 서울총회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1년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각각 618,485,690원의 규모로 짜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생회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처리되었다. 특별회계로는 평생회비 적립, 국고보조(3,750만원) 이외에 한국마사회 등의 기금지원금 337,514,000원, IFLA 2006 서울총회 준비사업비로 48,900,000원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사업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01년도 사업(안)은 71~75 쪽 참조]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협회장〉

이어서 회장 및 임원개선을 위한 평의원회 구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총회에서는 관종별로 모임을 가지고 각 관종별로 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선출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경구 열람관리부장, 공공도서관 박광하 원주도서관장, 대학도서관 이주열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수서과장, 학계 손정표 경북대학교 교수, 사무국 조원호 사무총장이 선출되었으나 전문·학교·특수도서관 부문에서는 전형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한상완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두영 협회장이 추천되어 총 7명이 전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전형위원 선출 후 다른 안건이 없어 제52차 총회는 폐회되었다. 이번 총회는 21세기 새로운 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개선과 함께 다양한 사업과 IFLA 2006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회의였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79~82 쪽 회의록 참조]

이사회 2001년 제1차 회의 개최

2001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가 3월 16일(금) 17:00 서초동에 소재한 회래등에서 이사 15명 중 10명, 감사 2명 중 1명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의 이사회에서는 제52차 총회를 앞두고 1) 2000년도 사업실적 보고, 2) 2000년도 회계 감사 및 결산보고, 3)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신입회원 입회승인 및 탈퇴회원 승인, 5) 2001년도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회의록은 76~79 쪽 참조]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IFLA 2006 서울총회 준비 및 도서관계 발전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차기회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 회장 등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사회 참석자는 이두영(회장), 정기영, 진교훈(이상 부회장), 권기원, 김남석, 김문환, 김석영, 심병규, 이경구, 조원호(이상 이사), 이숙자(감사), 불참자는 고희용, 박상진, 박희, 윤형두, 조왕근(이상 이사), 황영환(감사) 이었다.

평의원선출전형위원회 개최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새 임원진 선출을 담당할 평의원 40명을 선출하도록 위임받은 평의원선출전형위원회가 3월 30일(금) 16:00 협회 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선 위원장에는 호선을 통해 한상완 위원(연세대학교 교수)이 선출되었다.

협회 정관 제22조에 의하면 평의원회는 시도

(표) 평의원 선출 기준

| | 단체 | 개인 | 계 | | 단체 | 개인 | 계 |
|----|----|----|----|----|----|----|----|
| 서울 | 5 | 11 | 16 | 강원 | 1 | | 1 |
| 부산 | 1 | 1 | 2 | 충북 | | 1 | 1 |
| 대구 | | 2 | 2 | 충남 | 2 | | 2 |
| 광주 | | 1 | 1 | 전북 | | 1 | 1 |
| 인천 | | 1 | 1 | 전남 | 1 | | 1 |
| 대전 | 1 | 1 | 2 | 경북 | 2 | | 2 |
| 울산 | 1 | | 1 | 경남 | | 1 | 1 |
| 경기 | 2 | 3 | 5 | 제주 | | 1 | 1 |
| | | | | 계 | 16 | 24 | 40 |

별, 관종별, 회원종별(단체·개인)로 회원수를 감안하여 모두 4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선출기준(표 참조)을 근거로 각 전형위원이 해당 관종별로 평의원을 천거하고, 천거된 후보에 대해서 회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전형위원 전원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40명의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평의원 명단 86 쪽 참조]

평의원회 개최

4월 20일(금) 신 임원선출을 위한 평의원회가 IFLA 2006년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평의원 40명 중 34명이 참석하였다.

의장인 이두영 회장은 2001년 평의원회 구성 경과에 대해 보고한 후 이번 평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안전인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 선출 건에 대해 설명한 후 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첫 번째 안전인 회장 건에 있어서는 외부인사의 협회장 영입을 적극 추진토록 한 2001년도 제1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가칭 “신임회장 추대위원회”가 활동한 결과 신기남 국회의원(새천



(평의원회 회의 모습)

년민주당)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고 보고하고 이를 평의원들이 받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상완, 이치주 의원 등의 찬성발언이 있는 후 평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신

기남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부회장에는 신현택 국립중앙도서관 관장과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가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이어 이사선출에 들어갔는데, 정관에 따라 선출해야 할 이사 11명에 대해서는 신임회장단에 그 선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감사로는 박종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과 남택수 인천중앙도서관 관장이 선출되었다.

끝으로 그 동안 협회와 도서관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현 이두영 회장의 노고에 평의원들이 감사의 박수를 보낸 후 평의원회를 마쳤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본지 82~85 쪽 회의록 참조]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검토 및 설명회

대학도서관위원회에서 작성한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회의가 3월 5일 15:00 협회 회의실에서 박준식 대학도서관위원회위원장과 사무국의 사무총장, 기획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평가기준(안)의 작성경위, 내용에 대한 위원장의 설명과 기준의 확정과 출판, 향후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대학도서관위원회가 기준(안) 작성과정에서 도서관계 관련 단체들과 사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바로 책자로 출판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이 작성됨에 따라 3월 6일 대학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목표달성을 돕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국의 대학평가시 도서관부문에 대한 통일적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자체 평가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실제 대학평가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실무자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상호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 평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학교육협의회와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관계자들과는 설명회 후 사무국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37회 도서관주간

우리 협회가 제정한 도서관주간 행사가 올해에도 4월 12일(목)부터 18일(수)까지 전국 각지의 회원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도서관주간의 주제는 '도서관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로 정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도서관이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 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등대요 망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어로는 '도서관, 지식정보시대의 나의 경쟁력'과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빌 게이츠)'로 하여 포스터와 함께 제작되어 회원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이번 도서관주간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191개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등이 참여하여 총 1,347건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독서토론회 등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본지 36~37 쪽 참조]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 개최

우리 협회는 2001년 들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는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를 4월 12일(목)부터 5월 3일(목)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우리 협회의 IFLA 2006년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첫 번째 도서관문화강좌는 '도서관 사상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 도서관계의 위대한 사상가 중 랑가나단, 세라, 박봉석 및 엄대섭 등 4인에 대한 강의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술주의시대와 인터넷 시대에 도서관과 사서직의 정체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철학적 기반과 운동의 뿌리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도서관과 사서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수강인원을 40명으로 하였으나 회원들의 호응이 커 매 강의마다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본지 5·6월호에 게재할 예정임]

도서관문화학교 개교

우리 협회가 올해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도서관문화학교" 2001년 제1기 개교식이 4월 17일(목) 10:00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수강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본지 1·2월호 59쪽 소식 참조]

이번 도서관문화학교는 자녀독서지도 관련 12개 강의와 문화교양 6개 강의 등 총 18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6주간에 걸쳐 매주 3일씩 진행된다. [상세

한 소식은 38~39 쪽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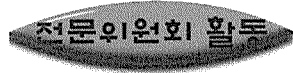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 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이라는 연구용역과제를 수탁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의 국내 도서관협력망을 총괄하는 중앙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요구되는 도서관 협력사업의 구체적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과 국내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 기획위원회위원장인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김태승 경기대학교 교수, 남태우 중앙대학교 교수, 박철완 강남대학교 교수와 이용훈 기획부장 등 4인을 연구자로 참여시켜 4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6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협력망 도서관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모델 개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사업 모델 개발,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협력망과 도서관정보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도서관관련 법령 및 제도상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 방안, 대학 및 전문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방안 및 구체적 사업모델 개발, 그리고 도서관협력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소요예산 등 도서관협력망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춘계 체육대회 개최

협회 사무국은 2001년 4월 23일(월) 춘계 체육대회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가졌다.



도서관기준 작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01년 3월 9일(금) 12: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무실
- 참석자 : 손정표(위원장), 변우열(위원)
- 안 건 : 학교도서관기준(안) 검토

분류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01년 3월 23일(금) 14: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이은철(위원장), 김명옥, 이창수, 이숙현, 이상복, 백항기, 성기주(이상 위원)
- 안 건 : ① KDC 저작권 침해 건
② 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 주요내용 :
 - 향후 KDC CD-ROM판 제작문제를 신중히 검토
 - 신속한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회 분류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기로 하고 협회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회원 및 도서관의 의견을 상시로 접수하도록 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대학도서관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01년 4월 12(목)~13일(금)
- 장 소 : 전주대학교 도서관
- 참석자 : 박준식(위원장), 김광일, 김성만, 김정태, 서휘, 옥경숙(이상 위원)
- 안 건 : ① 대학도서관 모델링 개발사업 업무분장

및 향후 계획 수립

- ②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평가회
- ③ 2001년 위원회 업무계획

· 주요내용 :

- 대학도서관 통계기준(안) 검토
- 대학도서관 모델링개발 사업 업무분장
- 도서관 단독운영모델 : 김강일 위원
- 통합운영모델 : 김정태 위원
- 도서관건물과 가상도서관 모델 : 서희 위원
- 멀티미디어센터 통합운영 모델 : 김성만 위원

목록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01년 4월 13일(금) 14: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태수(위원장), 기민도, 김정현, 남영준, 노문자, 이재선, 최석두(이상 위원)
- 안 건 : 한국목록규칙 제4판 개정안 검토

전문도서관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01년 4월 26일(목) 15: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태환(위원장), 고희곤, 김남진, 이영주, 이홍주, 조현양(이상 위원)
- 안 건 : ① 2001년 위원회 활동 계획
② 전문도서관 분야 전문단체들과의 협조 방안
- 주요내용 :
 - 전문도서관계에 대한 협회 차원의 관심 제고 필요성 확인
 - 전문도서관에 대한 영문 표기 문제 검토
 - 전문도서관 분야 전문단체들과의 만남의 기회 마련



공공도서관협의회 2001년 총회

- 일 시 : 2001년 3월 23일
 -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강당
 - 참석대상 :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원 도서관장 및 직원
 - 행사주요내용
 - 총 회: 안건처리 및 특별연구과제 발표
 - 세 미 나: 온라인저작물, 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특별공연: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 금난새)
- (상세내용은 본지 25~27 쪽 참조)

공공도서관협의회, 2001년도 공공도서관요람 발간

공공도서관협의회는 2001년도 공공도서관요람을 발간하였다. 요람은 국배판(12.5×18 cm) 크기로 173쪽이며, 우리나라 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 현황, 관종별 도서관 명단 및 주소록, 공공도서관협의회 규약, 관련기관 및 단체, 도서관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의처 : 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전화 : 02-590-0542)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춘계세미나 개최

- 일시 : 4월 25일(수) 11:00
- 장소 : 명지대 용인캠퍼스 명진당 강당

- 주요행사일정
 - 특별강연 “신바람 나면 살맛 납니다”
/ 황수관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 신기술 동향
 - 대학도서관을 위한 “토탈 인포메이션 서비스” :
김윤용 차장(신원데이터넷)
 - EDU SEEKER 클라이언트 메타 검색엔진 : 흥
갑선 이사(라이브콤)
 - DOI를 이용한 전자정보원 연계 시스템 구현 :
최영준 과장(한국아이엔에스)
 - 정기총회
 - 명지대학교 학술정보관 투어
- (문의처 : 명지대학교 학술정보관(라중복),
전 화 : 031-330-6065~7)

국 내 소 식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제공을 위한 '민간 구축DB'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업체가 구축한 상업용 온라인출판물 126종을 구입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월 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구입한 자료들은 사학연구(한국사학회),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관광학연구(한국관광학회) 등과 같은 국내학회지 108종,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삼국유사와 같은 한국학 자료 18종으로, 특히 학회지의 경우 창간호부터 최근에 발행된 모든 자료가 결호없이 제공되며 향후 발간되는 신간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갱신되며, 공공도서관에 공급하게 된

다.

이번에 구입 공급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정보화 환경이 갖추어진 인근 공공도서관에 가서 실시간으로 자료에 대한 검색·이용·다운로딩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1년도에도 이 사업을 위해 약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여종 이상의 자료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전화 : 02-590-064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사용자 설명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27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바른 ISBN사용법과 도서관 홈페이지 활용 방법' (현묘자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과 'ISBN을 이용한 POS시스템의 사용 현황' (김우진 교보문고 인터넷사업부)이 발표되었다. 참석자에게는 자료집과 ISBN사용법 CD-ROM이 배부되었다.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한국문헌번호센터,
전화 : 02-590-0627~9)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야간 개관

학위논문관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3월부터 야간 개관에 들어갔다. 주간에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과 직장인 등을 위해 학위논문관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는 취지이다. 학위논문관은 지난 1999년 11월 일반 공공도서관 기능에서 학위논문 전용관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 및 직장인 등을 포함해 일반인들의 자료실 이용이 1일 평균 약 1,200명(자료이용 1,500책)에 이르고 있다.

이용자들의 야간이용 대상자료는 학위논문관에 소장하고 있는 50만여 권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절차는 이용당일 사전에 통신(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야간운영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주간이용자는 자료이용연장시 열람표 확인으로 열람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 관계없이 21:00까지이고, 단 토·일요일, 휴관일(둘째와 넷째 월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학위논문관)의 야간도서관 운영에 따라,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이용을 할 수 있는 폭 넓은 이용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문의처 : 전화 : 02-557-7721(교 : 109, 202), 02-569-5637(교 : 85), 팩스 : 02-557 - 0611)

국립중앙도서관, 제2회 사서직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4일 제2회 사서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날 시험은 2001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사서직공무원(사서서기보(9급)) 10명을 선발하기 위해 치루어진 것으로 시험과목은 자료조직론과 정보학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앞으로 매년 11월말 현재 결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에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13명은 3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21일 10명의 최종합격자

가 발표되었다. [합격자 명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소식'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무원연구모임 활성화 지침' 및 2001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의거하여 2001년 1월부터 그 구성을 추진해 온 「도서관연구회」의 창립총회를 3월 12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서관연구회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을 회원으로 하며, 도서관 이론과 실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회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연구회 회칙을 제정하고 이경구 열람관리부장을 회장으로, 김창 사서사무관(자료조직과)을 감사로 선출한 한편 자료조직위원회, 자료운영위원회, 도서관정책위원회의 3분과 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앞으로 「도서관연구회」는 도서관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회원연수, 연구논문집 및 회지발간, 관련 학회 및 연구회와의 협력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 연구회 결성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0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제도와 함께 직원들의 전문 능력개발 및 지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남분과, 전화 : 02-590-0613)

광주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시작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도서관)은 4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http://www.citylib.kwangju.kr>)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다음날 택배로 각 가정에 책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무등·사직·산수 등 3개 시립도서관 장서 35만여권의 도서정보를 검색한 후 필요한 책이 있으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1회 대출권수는 무등과 사직도서관은 3권, 산수도서관은 2권으로 7일동안 대출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택배요금은 광주시내 동·서·남·북구에 거주하는 대출자는 1,500원, 광산구는 2000원이며, 반납은 방문, 우편, 택배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바라는 주민은 사진과 신분증을 갖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 대출증을 만들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중 희귀본, 참고도서, 향토자료, 간행물류 등은 일부 도서에 한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앞으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몸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 무등도서관, 전화 : 062-264-8879)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전자책 구매

대구시립남부도서관 (관장 임시중, <http://nbl.or.kr>)은 3월 24일 전자책(e-북) 전문업체(주)드림북(대표 김영인, <http://www.dream-book.co.kr>)으로부터 전자책 640종을 구매했다. 도서관에서는 열람전용 단말기를 설치해 책의 내용에 대한 검색기능까지 제공한다.

한편 3월 초에는 충남 보령의 청파초등학교가 역시 드림북에서 350여종의 전자책을 구매

바 있다. 이번 대구시립남부도서관에서의 전자책 구매를 계기로 앞으로 국공립도서관에서의 전자책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전자책 사업 뿐 아니라 도서관의 서비스도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전화 : 053-620-5580)

파주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파주시립도서관(관장 박재홍)이 도서관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4월 12일 파주 청석초등학교 강당에서 도서관 및 교육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교도서관 전산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토론했으며, 현장사례발표도 있었다.

파주시립도서관측은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업무조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순회독서지도 강화 등 꾸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파주시는 1999년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독서인격의 육성과 올바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전산화 운동을 추진하여 관내 초·중·고 24개교의 전산화를 완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문의처 : 파주시립도서관, 전화 : 031-940-4381)

서울시교육청 200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

되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사서직은 9급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5월 8일(화)부터 5월 11일(금)까지이며 시험은 6월 17일(일)에 치러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3999-373,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n.go.kr/sosik/index_a.html)]를 참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 가동식 가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정영미)은 캠퍼스 지식경영 개념을 도입한 세계적 수준의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가동식을 4월 25일(수) 오후 2시 동교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가졌다. 이 시스템은 강의 연구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은 5월 12일 창립기념일을 기념하여 공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 종합정보관 준공식 및 전자도서관 개관식

호서대학교는 천안 캠퍼스의 종합정보관 준공 및 전자도서관 개관식을 3월 23일(금) 오전 11시 동교 종합정보관 5층 소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문의처 : 041-560-8080, E-Mail : hjison@office.hoseo.ac.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차 도서관 세미나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학술정보의 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 함에 따라 해외 도서관의 서비스 동향과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서관에서의 서비스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디지털 시대 정보서비스' 라는 주제로 3월 26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서예관 대회의실에서 대학 도서관 사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KERIS 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영만 성균관대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정보요구와 서비스', 한양대 도서관 김휘출 박사의 '도서관 서비스 홈페이지 구성' 과 이명자교수(CSU, Hayward)의 '디지털시대 미국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변화'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LG상남도서관장 임원 승진

LG상남도서관의 정윤석 관장이 재단법인 LG연암문화재단의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

기업의 공익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장의 임원 승진은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1년도 공공도서관경상북도협의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이사회>

- 일 시 : 2001년 3월 7일(수) 10:00
- 장 소 : 안동도서관 관장실
- 참석대상 : 임원

<정기총회>

- 일 시 : 2001년 3월 7일(수) 11:00

- 장 소 : 안동도서관 시청각실
- 참석대상 : 관장, 관계 직원.
- (문의처 : 054-854-6065)

경기도사서연구회 춘계세미나 개최

경기도사서연구회(회장 김지봉)는 3월 19일(월) 9시 30분부터 과천호프호텔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립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정보화사업,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사업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으로 경기도 도서관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제를 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태승 경기대학교 대학원장의 '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과 도립도서관 발전'이라는 주제강연과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경기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립도서관 기여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최석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조문숙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과장과 박금희 도서관 콘텐츠확충과지식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차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문의처 : 경기도립과천도서관 02-503-2992)

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인터넷에 동호회 개설

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는 인터넷에 동호회를 개설하였다. 동호회명은 "한공연"이며 URL은 <http://club.dreamwiz.com/library> 이다. 이곳에서는 연구회 회원들의 동정이나 연구회와 도서관계 소식 등을 전해들을 수 있고 도서관 업무

관련 자료 등도 구할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 2001년 춘계학술발표회

한국문헌정보학회(회장 이은철)는 4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첨단 강의실에서 2001년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학술발표회에서는 정현태 명지대 강사의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방지 정책에 관한 연구", 김휘출 한양대학교 사서의 "디지털참고봉사에 관한 연구", 서진원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국립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은자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전자저널 가격정책의 최근 동향에 관한 고찰"과, 한윤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지식정보사회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5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문의처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내 한국문헌정보학회, 전화 : 02-760-0329) [상세한 내용은 본지 31~34쪽 참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춘계 워크숍

한국도서관·정보학회(회장 윤영대)는 4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2001년 춘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학 Archives란 무엇인가(Archives의 개념과 내용)' (전상숙 한국기록관리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자료관의 전산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지태 한국기록관리소 학예연구사), '정보서비스와 저작권(이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

장) 등이 발표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본지 34~35 쪽 및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ordic.re.kr/~kliss/참조>]

서지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서지학회는 4월 28일(토) 오후 1시 한성대학교 강의동 B101호실에서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학술논문은 배현숙(계명문화대)의 '상주 동학교당 典籍에 관한 연구', 강순애(한성대) '월인석보 권 20에 관한 연구', 박현규(순천향대 중어중문학과)의 '上海圖書館藏 清劉喜海의 定本 海東金石苑 연구' 정선영(광주대)의 '조선시대 공문서 규격에 관한 연구', 송일기(전남대)의 '조선시대 행실도 판본에 관한 연구', 김동환(중부대)의 '[명심보감]의 저자 문제에 관한 연구', 한미경(이화여대)의 '[금리석설] 천불동태에 관한 연구' 방효순(한성대)의 '일제침략기의 민간서적 발행활동에 관한 연구(假題)' 등 8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강순애 교수는 1459년(세조 5년) 간행된 '월인석보' (총 25권 추정) 중 미공개된 6권 가운데 하나인 권20을 공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강 교수는 권20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에 실린 노래 중 341곡부터 411곡까지 71곡을 싣고, '월인천강지곡' 해설서인 '석보상절'을 덧붙인 다음,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불교정전을 한글로 번역해 실었다고 밝혔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개고(改稿)해 합편한 책으로 가사문학과 국어학, 서지학 분야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아 보물 745호 지정되어 있다. 이번의 발견으로 월인석보는

이제 권 3, 5, 6, 16, 24를 빼고 모두 20권이 발견됐다. (문의처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화 : 043-229- 8405)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제1회 국민토론회 개최

지난 2월 26일 지식인선언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를 좋은 도서관을 바탕으로 책읽는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공동대표 도정일)은 4월 12일(목) 제1회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도서관 장서, 이대로 좋은가'로 도서관 예산 확충과 함께 도서관 장서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었다.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우창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김영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의 주제발표와 도정일 공동대표, 김종수 한울출판사 대표, 성종대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운영위원, 이명애 난곡주민도서실장, 전세중 전책사랑대표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8~30 쪽 참조]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공청회 및 사무실 이전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상임대표 한상완)는 학교도서관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4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와 변우열 공주대학교 교수는 모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와 운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본지 30~31 쪽 참조]

한편 2000년 11월 30일 출범 이후 줄곧 우리 협회 사무실에서 함께 활동해 온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여의도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3월 15일(목)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21 오피스텔 821호
 전화 : 02-6333-7100
 팩스 : 02-6333-7104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인적자원개발장관감담회에서 학교도서관 확충 제안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은 4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장관감담회에서 대통령께서 21세기 교육은 창의력과 모험심이 강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선진국이 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자 이에 대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IT 분야 영재교육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급속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인터넷 사용인구가 대단히 늘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과 책을 읽는 것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화로 지식기반 사회가 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도

서관을 확충해 정보화, 생물산업 등이 같이 연결이 돼야 한다. 특히, IT, BT 두 분야를 지식기반 사회의 발전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소 김영환 장관은 지식정보의 인재양성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을 통한 정보화 인력 양성과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설치를 통한 IT 영재 육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영환 장관은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도서관 문제를 의제로 삼아 우선 해결할 것으로 요구한 바도 있었다. 이번, 과학기술부 장관 취임으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소프트웨어고등학교 설치 등, 평소 추진해 왔던 각종 의정사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환 장관의 홈페이지 (<http://www.kyh21.com>)를 참조하면 된다.

제6회 디지털도서관 엑스포 2001 개최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은 1996년부터 매년 상반기 개최해오던 디지털도서관 학술·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인 (세미나 및 전시회)의 명칭을 2000년도부터 디지털도서관 엑스포(Digital Library Expo)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는데, 2001년 행사는 ‘디지털이 도서관을 바꾸고 있다’를 주제로 4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도서관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 관련 학술적, 기술적 연구결과를 세미나 방식으로 발표하고 시연을 통한 솔루션전시회를 병행함으로써 도서관 실무전문가에게 학술적,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12일에 진행된 디지털도서관 신기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도서관에서의 XML 응용’

((주)넥스텍), 'XQL 기반 XML 원문관리 시스템' ((주)원베이스소프트웨어), '종합 CD-ROM 검색 시스템 신기술' ((주)포힘정보), '디지털도서관구축을 위한 XML솔루션 : 엑스트림 2000' ((주)휴먼컴), '디지털도서관 구축사례 : 호서대학교' (주식회사 NDL), '디지털저작물 유통관리 시스템(DRM) 및 토의 토폴 모의시험 서비스' (페이퍼리스 웹 컨설팅(주)), 'Digital Active Library(DAL)' ((주)웍스) 등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업체들의 디지털도서관 신기술 발표가 있었다.

13일에는 디지털도서관 학술·기술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분석, 평가 방법' (임무혁/ (주)NDL 대표이사, 정보처리기술사), '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기획, 설계, 구축방법' (황금숙/ 대림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저작권법에 따른 디지털도서관의 정보 축적·서비스' (윤선영/ 문헌정보학 교수), '디지털도서관의 전자정보축적 방법' (이경수/ 페이퍼리스 웹 컨설팅(주) 연구소장), '디지털도서관의 타 정보원 연계 정보인프라 구축방법' (이종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원장)이 발표되었다.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도서관 엑스포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dl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자책컨소시엄, 한국 전자책(eBook) 문서 표준화 포럼 개최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회장 김경희)은 전자책(eBook)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0년 12월부터 최윤철 교수(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의 전문

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전자책 문서 형식 표준'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한국 전자책(eBook) 문서 표준'에 대한 포럼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제1차 포럼은 3월 15일 12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전자책 문서표준(EBKS)의 목적 및 제정 과정'에 대한 최윤철 교수의 주제발표와 임순범 건국대 컴퓨터과학과 교수의 '한국 전자책 문서표준의 기본방향 및 개요', 홍석희(주)다우기술 대리의 '전자책 문서표준 포맷', 김성혁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메타데이터'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있었다.

제2차 포럼은 1차 포럼에서의 수정내용과 표준안의 적용 방법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그 활용방법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4월 19일(목) 오후 1시 40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의 포럼에서는 최윤철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의 '한국 전자책 문서표준(EBKS)의 개요', (주)다우기술의 홍석희의 'EBKS DTD 구조와 적용 사례', 건국대 임순범 교수의 'EBKS 스타일 권고안과 적용방법', 숙명여대 김성혁 교수의 'EBKS 메타데이터 작성 규칙과 적용', (주)한국전자북 조영규와 (주)한글과컴퓨터 정병희의 'EBKS의 활용 : 문서 변환 사례를 중심으로', (주)와이즈북 오재혁의 'EBKS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문의처 : 한국전자책컨소시엄, 전화 : 02-722-6488, <http://www.ebk.or.kr>)

KBS 공사창립40주년 기념 방송 TV 책을 말하다 방영 호평

한국방송공사는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3월3일(토)과 4일(일) 양일에 걸쳐 황금시간대인 오후 8시 1시간씩 'TV 책을 말하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1세기도 여전히 책읽기가 중요하며 세계 각국이 어떻게 국민들의 책읽기를 유도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밀도있게 취재한 내용이었다. 3일 방영된 1편 '그들은 책을 읽었다'에서는 안철수 씨등 국내의 인사들의 독서활동을, 4일의 2편 '책읽기의 유혹'에서는 세계 각국의 독서진흥활동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의 낮은 수준과 독서진흥활동의 부진함을 드러내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으로서의 한국방송공사의 위상에 걸맞는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도서관계와 출판, 독서계의 광범위한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한국방송공사는 이번 프로그램 방영을 계기로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http://www.kbs.co.kr/1tv/kbs_special/book_index.htm)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개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2차례에 걸친 국제적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토대로 경주에 문화테마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3월 30일부터 개장하였다. 이 공원에서는 전시, 영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고 한다. (문의처 : 전화 : 054-748-3011, 팩스 054-748-3012)

공주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관장실 : 041-855-7120

행정실 : 041-855-7121

팩 스 : 041-855-7122

국 외 소 식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제2차 한·중·일 인명선거 통제 회의 개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LL)는 3월 28일~30일 동경에서 “제2차 한·중·일 인명선거 통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이 자국의 MARC에 기초한 인명선거 데이터의 실질적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기민도(자료조직과), 이재선(정보화담당관실) 사서가 참석하여 “KORMARC에 의한 자명 선거데이터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영국, 공공도서관 새 표준 마련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성(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은 지난 2월 12일 공공도서관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표준의 시행에 대해 발표한 후 4월부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3년의 시행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1964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 Act)에서 명시한 ‘도서관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 제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적 표준이 없었는데 이번 기준으로 인해 잉글랜드 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국 도서관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표준은 열람시간, 도서관의 위치, 장서의 질, 전자출판물의 이용, 직원자질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에 의해 모든 이용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은 http://www.culture.gov.uk/heritage/libraries_papers.html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디지털정보 수집과 보존에 대한 국가 사업 시작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미국의회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특히 디지털 형태로만 만들어진 자료를 현재와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보존 프로그램 개발 권한을 도서관에 부여함에 따라 의회의 지원 아래 디지털정보의 구축과 보존에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미국의회도서관은 1998년부터 전자환경에서의 의회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을 평가하는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급격하게 발전하는 디지털환경에 직면하여 미국의회도서관이 대처해야 할 과제를 조사하여 줄 것을 미국과학원 국가전산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결과 위원회는 미국의회도서관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국가 협력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LC21 : 미

국의회도서관을 위한 디지털 전략(LC21: Digital Strategy for the Library of Congress)”을 제시한바 있다.

앞으로 미국의회도서관은 책임을 분담하고 공동 계획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상의할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 이외의 기관의 참가도 모색할 것이며 미국과 그 외 국가에 있는 도서관, 출판, 기술, 저작권계와 협력하여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http://www.loc.gov/today/pr/2001/01-006.html> 참조)

호주국립도서관 100주년 기념행사 및 웹사이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

호주국립도서관이 2001년에 개관 100주년이 되었다. 1901년 호주연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의회를 돕기 위한 의회도서관을 만들었고 이 도서관이 오늘날 연방의회도서관과 호주국립도서관의 모체가 되었다. 호주국립도서관은 1960년도에 연방의회도서관의 활동과 구분한 국립도서관법령을 제정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편, 호주국립도서관은 2월 2일 웹사이트의 창작자와 출판사를 돕기 위한 “호주의 웹사이트 보호 : 창작자와 출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Safeguarding Australia’s web resources : guidelines for creators and publishers)”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의 제작, 이름짓기, 관리에 이르는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계와 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을 포함해서 아직 디지털 데이터 관리 처리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창작자와 출판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가이드라인은 광

범위한 웹자원들을 보존하여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의 인쇄본은 호주국립도서관의 전자부(elecunit@nla.gov.au)로 연락하면 구할 수 있다. (http://www.unesco.org/webworld/news/2001/010202_ausguidelines.shtml 참조)

영국, 목록규칙 전면 개정 - MARC21 포맷 도입 -

영국도서관계의 목록과 서지데이터 형식이 MARC21로 전면 개정된다. 지난 3월 19일 영국국립도서관은 영국도서관들이 새로운 도서관 목록 레코드의 표준으로 MARC21을 받아들일 것을 원한다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국립도서관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MARC21로 전면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30%는 부분적 조화를 원했으며 단지 7%만이 지난 32년 동안 사용했던 UKMARC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이에 따라 영국국립도서관 MARC21로 목록규칙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도서관계는 MARC21의 채택으로 인터넷에서 이전보다 광범위한 서지레코드를 다운로드 하며, 더 나아가 미국, 캐나다 및 다른 세계 여러 도서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portico.bl.uk/information/pr2001/14.html> 참조)

미국, 영부인 로라여사와 함께 한 도서관주간

미국도 4월 1일부터 7일까지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을 실시하였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전직 사서였던 영부인 로라 부시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http://www.ala.org/news/v7n5/national_campaign.html 참조)

미국 뉴욕타임즈, 도서관상 제정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하는 사서들에게 이 상이 수여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사서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뉴욕타임즈 도서관 서비스상」과 「뉴욕타임즈 도서관인상」을 제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해마다 수여될 이 상은 뉴욕시의 5개 행정구(맨하탄, 브롬코스, 브루클린, 퀸스, 리치먼드)내의 공공도서관 사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9월 첫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이 상의 시상식은 '뉴욕타임즈 150주년 기념행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s/news/thisweek/20010319_18041.asp 참조)

일본, 도서관 자원봉사 최고 인기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원봉사 직종은 "도서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닛케이(日經)신문이 실시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 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자원봉사자가 주로 하는 도서관 업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및 점자도서 제작과 이동도서관 관리업무 등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일도 인기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자원봉사라고 해서 대충 허드렛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자격과 강습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고 봉사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다.

미국, 대학 농구팀과 함께 하는 책읽기 권장 프로그램 인기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던햄주의 명문대학인 듀크 대학(Duke University) 농구팀과 던햄 공립학교가 함께 책읽기 권장 프로그램인 "Verizon Read with the Blue Devils"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Blue Devils는 듀크 대학 농구팀의 별칭이며 Verizon은 이 프로그램을 협찬하는 전화회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8단계의 상품을 걸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이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으면 부모는 그 날짜와 서명을 해 준다. 이렇게 매일 15분씩 15일 동안 책을 읽으면 1단계를 달성하게 된다. 1단계에 도달한 학생들은 부모가 준 증명서를 사서교사에게 제출하고 1단계에 해당하는 상품을 타게 된다. 이렇게 매일 15분씩 15일 동안 책을 읽으면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8단계까지 매단계마다 듀크대학 농구팀과 관련된 상품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은 농구를 워낙 좋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책읽기를 권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신문사, 전화회사와 대학의 농구팀 등이 함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개발, 지역사회와 학교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글 : 편현정, hjpyun@nc.rr.com)

시 무 국 일 지

- 3월 2일 이용훈 기획부장,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관련하여 KBS 제1 라디오 전국방송(FM 97.3/AM 711) '송승환의 문화 읽기' 생방송 인터뷰
- 3월 6일 조원호 사무총장, 이용훈 기획부장,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설명회 참석
- 3월 7일 이용훈 기획부장,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관련하여 SBS라디오(FM 103.5/AM 792) '김찬식의 세상속으로' 생방송 인터뷰
- 3월 9일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1년 제2차 회의
- 3월 10일 조원호 사무총장, 이현주 총무부장, 도서관대회 준비차 부산 BEXCO 방문
~12일
- 3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한·일 도서전' 관련 회의 차 방한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관계자(이케모토 유키오(과학기술자료과장) 등 3인) 협회 방문
- 3월 16일 이사회 개최
- 3월 19일 이용훈 기획부장, 경기도사서연구회 춘계세미나 참석
- 3월 20일 박경아 팀장, 문화학교 운영 관계자 연수회 참가
~22일
- 3월 30일 제52차 정기총회
- 4월 12일 제37회 도서관주간
~18일
- 4월 12일 이용훈 기획부장,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제1회 국민 토론회 참석
- 4월 12일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 실시
- 4월 13일 목록위원회 2001년 제1차 회의
- 4월 17일 도서관문화학교 2001년 제1기 자녀독서지도강좌 개교식
- 4월 20일 평의원회 개최
- 4월 23일 사무국 춘계체육대회
- 4월 26일 이두영 회장, 이용훈 기획부장,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주최 '학교도서관 관련법 제·개정 공청회' 참석
- 4월 26일 전문도서관위원회 2001년 제1차 회의

인 시 동 정

국립중앙도서관 31대 신현택 관장 취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신현택(申鉉澤)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이 4월 18일자로 승진·임명되었다.

신임 신현택 관장은 1975년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 문화체육부 중무실 중무관, 공보관, 예술진흥국장,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관광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9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으로 재임(在任)하여 왔다.

숙명여자대학교 이춘실 교수, 대한의학회에서 공로패 받아

숙명여자대학교 정보과학부 이춘실 교수는 3월 23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학 학술지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의학 학술지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과학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한 우리나라 의학 정보의 검색을 통하여 계량화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간행 위원회 위원으로서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의 정보 기술 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 회원수 3만명)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도서관인윤리선언」 일본어판 誤字 정정 안내

본지 2000년 11·12월호(제41권 제6호) 62~63쪽에 게재된 『도서관인윤리선언』 일본어판에 오자가 있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치 | 誤 | 正 |
|---|---------------------------------|-----------------|----------------|
| ① | p.62 본문위에서부터 6째 줄, 1.【社會的責務】... | 民主主義 | 民主社會 |
| ② | " 10째 줄, エ 圖書館人は... | 知識司會 | 知識社會 |
| ③ | p.63 본문위에서부터 5째 줄, イ 圖書館人は... | 協力の體制 | 協力體制 |
| ④ | " 12째 줄, ウ 圖書館人は... | つれに親切 | つねに親切 |
| ⑤ | " 19째 줄, ウ 圖書館人は... | 組織化するんに あたって | 組織化するに あたって |
| ⑥ | " 22째 줄, ア 圖書館人は... | つれに専門 | つねに専門 |
| ⑦ | " 23째 줄, イ 圖書館人は... | つれに誠實 | つねに誠實 |
| ⑧ | " 24째 줄, ウ 圖書館人は... | 關聯して | 關聯した |

신 인 회 원

<단체회원>

안덕산방도서관(2001. 2. 17.)
 수정문화정보센터(2001. 3. 24.)
 안강읍민도서관(2001. 3. 24.)
 광주북구일곡도서관(2001. 3. 30.)
 부안군립도서관(2001. 4. 3.)
 방송위원회자료실(2001. 4. 7.)
 백석중학교도서관(2001. 4. 30.)
 부산정보대학도서관(2001. 5. 8.)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 2001. 4. 3.)
 이주열(서울여대도서관수서과, 2001. 4. 3.)
 정영숙(경상대사대부속중학교, 2001. 4. 4.)
 이성숙(충남대 문정과, 2001. 4. 17.)
 장홍재(신구대학 국문과, 2001. 4. 30.)
 김미경(국군의무사령부, 2001. 5. 3.)

• 평생회원

박창옥(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2001. 1. 19.)
 이숙희(서울대중앙도서관 농학분관, 2001. 1. 30.)
 류갑번(〃) 박현우(〃) 송미경(〃)
 이주석(〃) 이철숙(〃) 장희철(〃)
 조은실(〃)

<개인회원>

• 보통회원

김미혜(육군제3사관학교도서관, 2001. 3. 2.)
 박진우(한국도서관협회, 2001. 3. 12.)
 박병칠(조선대학교, 2001. 3. 22.)
 윤영란(창원대학교교무과, 2001. 3. 26.)

안명경(숙명여자고등학교, 2001. 3. 27.)
 함인숙(숙명여자중학교, 2001. 3. 27.)
 박명규(서울외국인학교, 2001. 4. 19.)
 고희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 4. 27.)
 이미영(오산대학교도서관, 2001. 5. 18.)
 박형림(신구대학기획실, 2001. 5. 18.)
 송근주(서일대학도서관, 2001. 5. 18.)